

12-14-2025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애베소서 1:17-23

말씀제목: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소망과  
성도 안에서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소망과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풍성함이  
무었인지 깨닫기 위해서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지성의 눈을 밝히셔야만  
알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롬  
8:29-30)

다윗왕은 오래 전에 성령 안에서 이  
소망에 대해 미리 알고 예언했습니다:

“나,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시  
17:15)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 첫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한 것은 그분이 성령으로  
태어난 첫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그분을 믿어 성령을 받아 거듭난 형제들은

누구나 그분의 형제가 된 것이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예수님과 일치하게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하는 휴거의 날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  
우리 구속의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잡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하는 몸을 입으리라.”(고전 15:51-53)

그러면 우리가 하늘로 휴거되어  
예수님과 동일한 형상을 입고 무엇을 하면서  
하늘에서 영원토록 지내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의 유업의 풍성함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엡 1:20-22)

무엇보다 놀라운 일은 만물의  
머리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게

주셨다고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지난 이천 년 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세워져 왔습니다.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 성령으로 태어난 성도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단 두 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천 수만 명이 모여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으니라.”(마 18:20)

휴거의 날이 올 때에 지난 이천 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잠자던 모든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남은 성도들과 함께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 가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 4:16-17)

사도 바울은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받게 되는 유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에 대해 성령 안에서 밝히 말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엡 1:23)

그야말로 이 말씀은 지성의 눈이 밝혀진 사람만이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영원무궁토록 하실 일에 대하여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교회가 그의 몸이며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상에 세우신 목적은 교회가 그분과 함께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일을 영원무궁토록 하도록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휴거되는 성도들은 옛날 아담과 노아가 땅을 다시 채우는 일을 맡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우주 만물들을 그분과 함께 채우는 풍성한 유업을 받아 영원무궁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현재 하늘에 수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해도 언젠가는 모든 별들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주를 확장하실 것입니다. 우리 머리로는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영원함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풍성한 유업이 될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혼들이 영원무궁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